

Gazprom, 에너지 2위 메이저 부상

러시아 증시 상장으로 기업가치 2000억달러 ... BP · Shell 곧 제칠 듯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인 Gazprom이 러시아 증시 상장에 힘입어 조만간 세계 2위 에너지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알렉세이 밀러 사장이 밝혔다.

알렉세이 밀러 사장은 1월15일 국영 로시야 TV와의 회견을 통해 “Gazprom이 러시아 증시에 상장됨에 따라 기업가치가 20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게 됐다”며 “Gazprom은 이제 세계 에너지산업 4위를 차지하게 됐지만 2위, 3위인 BP, Royal Dutch Shell과 간발의 차이만 남겨 두고 있어 곧 BP와 Shell을 제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1위인 ExxonMobil의 자산가치는 3750억달러이며, BP와 Royal Dutch Shell은 각각 2370억달러, 2230억달러에 달한다. (모스크바로이터=연합뉴스)(끝)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1/17>